

흔적

이진수+김현숙 / 건국대 건축공학과

대지의 설정

가회동 지역의 경우 1991년 한옥보존 지구 해제 이후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있어서는 기존의 한옥들과 재개발 되어진 근대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과거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계획시 필연적으로 훼손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나, 이미 이 지역에서의 보존은 대부분의 경우 지붕안을 남겨둔 채 실질적인 생활공간은 이미 개조되어 보존으로서의 당위성이 약하며 과거의 보존이라는 것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통의 계승과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기존 질서

현재 가회동 지역의 다른 지역과 다른 특이점이라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진 골목길들과 그 위에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한옥군의 집합과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 길과 마당 필지의 규모 등을 기존 도시의 하부 구조로 설정하고 이를 계획시 변형 보존 시키도록 한다. 이것은 기존의 공간 구성 체계에 대한 보존이며 현재 살고 있는 주변들의 생활형태에 대한 보존이라 할 수 있다.

세대수 설정 및 규모 설정

기존 14세대를 모두 수용하며 여기에 임대주호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존 세대들은 기존의 위치와 진입의 형태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주며 복층화가 가능한 부분을 2층을 임대공간으로 계획하고, 필요시 자가사용이외 개별적으로 4세대의 임대 주호를 추가로 계획 중세대수는 18세대이며, 가변적으로 임대가능한 세대수는 6세대를 추가하면 총 수요 가능 세대수는 24세대가 된다.

결언

가회동 지역은 기존 복촌 마을이라는 Image와 주민들의 자긍심 또한 상당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개발 필요성이라는 점을 어떤 형태로 풀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새로이 계획할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